

내면성찰로 마음의 눈 떠라

나는 마음으로 봅니다 헨리 그룬왈드 지음

“장애 없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가 오면 상실감에 빠져 좌절부터 한다. 어렵고 힘들지만 남아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 더 큰 보상을 받게 된다. 나는 시력을 잃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로 인해 마음의 눈을 떠는 것에 대해서 환희심을 느낀다.”

20여 년 동안 타임지의 편집인으로 살아온 헨리 그룬왈드 씨가 쓴 <나는 마음으로 봅니다>(사과나무)는 그가 불치의 눈병 ‘황반변성’에 걸려 시력을 잃어 가는 과정, 그리고 내면의 성찰을 통해 마음의 눈을 떠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책은 글쓴이가 컵에 물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 새로 안경을 맞춰야겠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불치의 눈병이란 사실은 평생 글쓰기와 읽는 일이 종사한 글쓴이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시력을 잃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느냐며 자신의 병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평소 의식조차 못했던 ‘눈’에 대해 모든 관심을 집중한다. 시력을 되찾는 데 의학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눈이 어떻게 작동하며 어떤 진화 단계를 거쳤는지, 그리고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시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이 있음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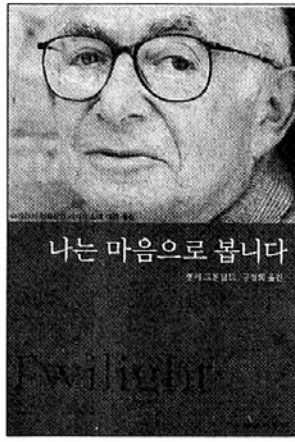
그는 이런 탐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보

기도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다. 눈이 흐려지기 이전에 만끽했던 추억을 다시 떠올려 보며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는, 보통사람들은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눈을 이용한다는 평범한 진리도 배운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육신의 눈 옹고 마음의 눈 얻는 체형과정 생생

시력이 떨어질 때 동시에 그를 둘러싼 현실이 점점 뿌옇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정상적으로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계속 반추한다. 이러한 마음의 눈 뜨기는 예술감각으로 더욱 심화된다. 예술감각의 첫 번째 원칙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원칙은 곧 일상사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글쓴이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상으로 본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인간에게 있어 눈은 세상을 거울처럼 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면서 바라보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육신



나는 마음으로 봅니다

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신체의 부자유를 극복하면, 즉 마음의 눈으로 인간과 세상을 다시 보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단순히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또한 잃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는 신념의 산물이기도 하다.

마음으로 보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글쓴이는 “병에 걸렸다고 인생이라는 책을 덮을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이는 아무리 불행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기도 하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김광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일제하 불교·정화배경 사실 중심 객관적 서술



일제하의 불교교단 및 불교청년운동에 중점을 둔 연구서 <근현대불교의 재조명>(민족사)이 나왔다. 같은 이 김광식 씨는 현대불교사를 거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즉 반드시 일제하의 불교사가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그 결과를 가운데 하나로 ‘불교와 일본제국주의’ ‘정화공간의 불교’ 등 근대불교관련 연구논문 18편이 수록돼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현대불교사의 진원지 조계종단 탄생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던 ‘정화운동’을 학술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정화사 이해는 극단적인 찬양과 비판이 양립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제 감정이 아닌 객관적 사실중심의 이해와 냉철한 비판이 있어야 할 때다. 이 책이 실득력을 갖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1954년부터 1970년대 불교정화의 배경, 시말과 개요 등을 요약 정리함을 물론 정화의 모순과 문제점을 신랄하게 파헤치고 있다. 그리고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과 대안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밖에도 선종불교(禪宗佛敎), 교육 등 근현대 불교사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서술한 이 책은 지금의 한국불교를 반성케 하는 책적으로 모자람이 없다. 값 2만5천원. 김중근 기자

고명수 ‘나의 꽃밭에...’

선승·혁명가·시인 ‘만해 종합적 접근’



왜 만해인가? 한길사가 ‘위대한 한국인’ 시리즈의 11번째로 펴낸 <나의 꽃밭에 나의 꽃이 피었습니다>는, 그간의 만해공전과 달리 우리에게 만해는 무엇인가를 묻지 않는다. 동원대 출판미디어와 교수로 있는 고명수 씨는 오히려 왜 ‘아직도’ 만

해인가를 묻는 것에서 이야기를 풀어간다. 이 책은 만해 스님의 문학과 사상 그리고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 만해 스님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폭넓게 분석한 뒤 자연인과 지식인, 역사인으로서의 만해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 책을 통해 조선 말기의 승려입성 금지 해제가 일본 승려 사노의 건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박영효 내부대신을 비롯한 관료가 추진했던 개혁작업의 일환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또 조선시대 강원도 홍성의 문화적 풍토, 3·1운동 당시 만해스님의 구체적 활동을 소개하고 시집 <님의 침묵>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책 말미에는 일제 강점기에 나온 50여종의 독립선언서 가운데 명문으로 꼽히는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가 실려있다. 값 1만원.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이책의 한구절

■ “죽음은 상당한 정신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초심자에게는 두려움의 원인이다. 하지만 전 생애를 바친 수도자는 죽음 앞에서 즐거워한다. 인간이라는 존재, 현상의 견고함, 소유에 대한 모든 애착이 사라진 이상 죽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죽음은 친구 같은 존재, 삶의 한 단계, 단순한 옮겨갈 뿐이다.”

— 철학자인 아버지 장프랑수아 르벨(75)이 출가한 아들 마티유 리카르(53)를 20년만에 만나 삶, 죽음 등 인생의 본질에 관해 열화론자 나는 대답집 <승려와 철학자>(창작시대), 값 1만2천원.

■ “지금 이 순간 바른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깨달음은 체험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삶의 완성이란 새롭게 실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온전히 현실 위에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의 존귀성과 속성, 그리고 그 질서를 비르며 파악하여 그에 적응하고 하나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삶의 완성은 새로운게 아닌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일”

—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이 한국불교가 나아갈 바를 걱정하며 10여 년 동안 써온 글을 모은 <화엄의 길, 생명의 길>(선우도량), 값 8천원.

■ “인간의 육체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불과하다. 영혼은 육체를 배를 타고 가며 선장은 영혼이다. 영혼은 신의 부인이며 그 부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긴 율회의 과정에서 지은 업보를 잠재의식 속에 날들이 기억해 둔다.”

— 30여 년간 신과 영혼문제에 천착, 정진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일본 다카하시 신지의 영혼 고백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된 7가지 이유>(해누리), 값 9천원.

■ “욕망이란, 뿌리에 독이 있으되 꼭지에 꿀이 맺혀 있는 것과 같다. 못 삶들은 줄에 묶인 새와 같이 자신의 욕망에 묶여 있는 것이다. 수행자는 자신을 묶고 있는 끈을 끊어버리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수행자라고 해서 항상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풀잎을 잘못 건드리면 손가락이 베이듯, 수행자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스스로를 지옥으로 이끈다. 그만큼 욕망을 지우기가 어렵다.”

— 독일 쾰른의 린덴탈 호수가의 거지성자 페터 노이아르의 한국방문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선재), 값 7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이 라마	문이담
2	선방일기	지 허	여시이문
3	단박에 율회를 끊는 가르침	김 지 수	불광
4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	틱 날 한	지혜의 나무
5	산세 개편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정 세 채	모색
6	불교란 무엇인가	최 봉 수	부디스트덤
7	전통사찰을식	적 문 우	리
8	천수경 천수신앙	혜 국 효	림
9	심천사찰요법	박 남 회	정신세계사
10	석가모니 지혜동화	하 순 봉	은하수

도서 안내: (02)737-0695

50가지 마구니 유혹 극복하는 길

한글세대 위한 ‘능엄경 1·2’

절식을 하러 다니던 아난은 매 음굴을 지나던 중 마구니(摩睺 伽女)를 만난다. 그녀의 유혹에 넘어간 아난은 결국 계율을 어기게 된다. 이를 안 부처님께서 문수 보살에게 아난을 구해오라는 신주를 내리자 사탄 술법의 사슬은 사라진다. 문수 보살에 의해 부처님 앞에 이끄러온 아난은 가

르침을 받기를 원한다. 이에 부처님은 아난을 비롯하여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내린다. 이것이 <능엄경>이다. 이 경전이 다른 경전보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수행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능엄경>은 50가지 마구니의

유혹을 극복하는 길을 자세히 적고 있다. 이런 점이 수행자들에게 많이 읽히는 이유다.

오진탁 교수(고려대 철학과)가 펴낸 <능엄경 1·2>(시공사)는 이러한 <능엄경>의 핵심 사상을 한글세대를 위해 우리말로 정리한 책이다. 아난이 이 가르침을 듣고 환희심을 일으켰듯이, 불자들이 이 경전을 수행의 지침서 삼으면 어떨까. 값 각각 1만4천원. 김중근 기자

불교복지 방법론 모색

권경임 ‘현대불교 사회복지론’

불교사회복지학은 일반사회복지 분야와는 달리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학문분야다. 최근 들어 교계 일각에서 불교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보편적 복지로서 실득력을 갖기는 아직 이르다. 이는 아직 불교사회복지학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불교사회복지론>(나남)은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불교사회복지의 연구방법을 고찰하고 사상과 실천방법을 통해 실천체계를 제시하고 불교사회복지가 활성화되고 현대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승가대 권경임 강사가 쓴 이 책은 불교사회복지 실천방법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요 주제는 불교사회복지사상과 실천방법, 체계 그리고 불교사회복지의 지원 및 전달체계 등. 글쓴이의 박사학위논문 ‘불교사회복지 사상과 실천체계에 관한 연구’를 수정 보완한 이 책은, 학문적 깊이와 불교복지에 대한 애정이 더해져 관련 분야 학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다. 값 1만7천원. 김중근 기자

위빠사나 10월 修行안내

부처님께서 하셨던 방법 그대로의 수행을 체험하실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기간 (1차) 10월 14일(토) 오후3시 ~ 10월20일(금)까지
(2차) 10월 21일(토) 오후3시 ~ 10월27일(금)까지

참가비 20만원

지도스님 知玄 스님

준비물 편한복장(따뜻한옷), 세면도구, 알람시계, 필기도구
달마를 체득하겠다는 서원

연락처: 031)574-5585
F A X : 031)574-0808

www.shinbiro.com/~bonginsa

봉인사 한길정진원 합장

응선사 제9기 교리 강좌

- ▶ 개강 일자 : 10월 17일
- ▶ 교육 시간 : 매주 화요일 11시
- ▶ 교육 기간 : 1년(2000년 10월 ~ 2001년 10월)
- ▶ 동 참 금 : 6만원
- ▶ 강좌 범사 : 수암스님

강좌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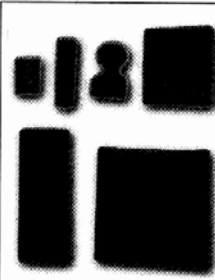
1. 사찰 예절
2. 부처님의 삶과 교훈
3. 불교의 역사적 전개
4. 불교의 근본 교리
5. 불자로서의 수행 생활
6. 천수경, 예불문, 반야심경

강의 문의: 02)394-9765
강의 장소: 세검정 하림과 맞은편 응선사
교리 공부를 통하여 삶의 본질을 깨우쳐 삶을 변화시켜 새롭게 태어납니다.

생활불교기도도량 응선사

행운을 따르는 벽조목

벼락맞은대추나무의 수수께끼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몸에 지니거나 보관하면 모든 화를 쫓고 행운을 가져오며 소원이 이루어 진다고 하였습다.

지난 1998년 11월에 서울롯데백화점에서는 대

벽조목

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합격을 기원하는 행운의 나무 가지기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벽조목은 워낙 희귀하여 진품이 어려운데 여기에 진품이 있습니다.

옛 선사께서 좋은 물건은 인연따라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055)742-6044

011)554-6044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천 대 불 교

- 본 사 02)737-8881
- 강릉지사 033)643-5577
- 고성지국 055)672-0078
- 광주지사 062)375-9986
- 대구지사 053)983-9222
- 목포지국 061)279-3788
- 밀양지국 055)353-1196
- 부산지사 051)463-5331
- 안산지국 031)494-8859
- 영주지국 054)674-1199
- 울산지사 052)257-7737
- 진주지사 016)585-2120
- 제주지사 016)695-6885
- 충청지사 042)527-0559
- 일본지사 031)713-5111